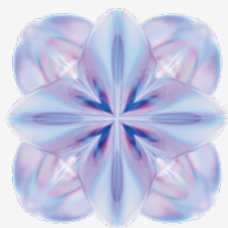


2026학년도 약술형 논술전형
씨에스엠17 연계 양상



2026학년도 씨에스엠17 약술형 논술 적중 사례

가천대 & 국민대





약술형 논술전형 가천대학교 국어 영역

제시문 문학 「들국」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기출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p>	<p>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치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p>
--	--

- 김용택, 「들국」

지문 적중 문학 「들국」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가천대 시즌2 3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p>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p>	<p>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치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p>
--	--

- 김용택, 「들국」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입을 그리워해 우니나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낮이라도 입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슬프도다 아으
 임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아아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 정서, 「정과정곡」

*이숫하요이다: 비슷합니다.

*잔월효성: 새벽녘의 달과 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입을 그리워해 우니나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이다
 낮이라도 입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우기던 이 누구였습니까
 과(過)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의 말이랍니다
 슬프도다 아으
 임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아아 입아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소서

- 정서, 「정과정곡」

*이숫하요이다: 비슷합니다.

*잔월효성: 새벽녘의 달과 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1 페그(Peg)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51 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은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母)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항성과 행성은 각각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항성 내부에 있다.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는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숫값, 멀어질 때 양숫값을 갖는다.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행성 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된다.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행성 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에 변화를 일으킨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댓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댓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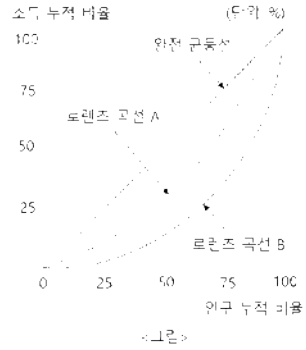
51 페그(Peg)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새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51 페그 b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은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母) 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이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 이때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운동을 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항성 내부에 있다.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는데,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린다.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행성 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숫값, 멀어질 때 양숫값을 갖는다.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행성 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수,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양수가 된다. 모 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행성 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에 변화를 일으킨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댓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 절댓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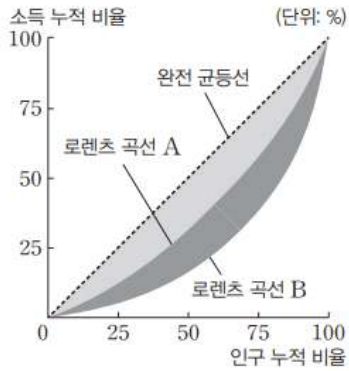
선진국들의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A 사회보다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니 계수이다.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과 같으며,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 만일 <그림>에서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고,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질 것이다.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킨다. 10 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 등분하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10 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완전 균등선이라고 한다. 소득이 불균등한 경우 로렌츠 곡선은 완전 균등선 밑으로 늘어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A 사회와 B 사회의 로렌츠 곡선을 각각 로렌츠 곡선 A와 로렌츠 곡선 B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로

렌츠 곡선 A보다 로렌츠 곡선 B가 완전 균등선에서 멀기 때문에 A 사회보다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니 계수이다. 지니 계수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된다. 만일 <그림>에서 B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로렌츠 곡선 B는 완전 균등선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고,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B 사이의 면적은 완전 균등선 아래 면적에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위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분위란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나뉜 각 집단을 가리킨다. 10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10등분하고, 하위 4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10분위 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값은 2보다 클 수 없다. 이와 달리 5분위 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정렬한 후 5등분하고,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5분위 배율 값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분위 배율의 값이 6이라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배 많은 소득을 점유한다는 의미로,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날째 밤이군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제 말대로 하세요.”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종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좀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섭구나.”

여종이 내당(內堂)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는 손수 열쇠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불어 켰다.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체했지만 실은 잠자지 않고 있었다. 심생은 숙은 것이 분하면서도 그나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다.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감히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는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갔으며 옷자락 젖는 것쯤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

한밤중이었다. 온 집안이 모두 달게 잠들었고 소녀 또한 등불을 끈 지 오래였다.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종에게 불을 켜라 이르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오늘 밤은 내당에 가서 자거라!”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소녀는 벽 위에서 열쇠를 가져다 자물쇠를 풀더니 뒷문을 활짝 열고 심생을 불렀다.

“낭군! 방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가 다시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마침내 내당으로 가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소녀의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녀가 말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나이 열일곱, 그동안 문밖에 나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나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보자기가 견혀 올라가 마침 초립을 쓴 낭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지요.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밤 오셔서 뒷문 아래 숨어 기다리신 게 오늘로 이미 삼십 일이 되었네요. 비가 와도 오고 추워도 오고 문을 잠가 거절해도 또한 오셨어요.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 본 지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만일 소문이 밖에 퍼져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 쳐 보세요.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낭군이 그저 창밖의 벽에 기대어 있기만 했다고 여기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건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써서 개에게 물린 평 신세가 되고 마는 거지요.”

(중략)

심생은 이날 밤 소녀와 동침한 이래 저녁에 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소녀의 집은 본래 부유해서 심생을 위해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주었다. 그러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볼까 봐 그 옷을 입지 못했다.

심생은 비밀을 깊이 감추었지만,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마침내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심생은 불만스런 마음에 우울하게 집에 머물다가 벼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 짊어 메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禪房)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워 올 즈음,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했다. 뜯어 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다. 소녀는 이미 죽었던 것이다.

- 이옥, 「심생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날째 밤이군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제 말대로 하세요.”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여종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좀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섭구나.”

여종이 내당(內堂)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다.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는 손수 열쇠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고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등불을 붙여 켜다.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체 했지만 실은 잠자지 않고 있었다. 심생은 숙은 것이 분하면서도 그나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다.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감히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는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갔으며 옷자락 젖는 것쯤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

한밤중이었다. 온 집안이 모두 달계 잠들었고 소녀 또한 등불을 끈 지 오래였다.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종에게 불을 켜라 이르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오늘 밤은 내당에 가서 자거라!”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소녀는 벽 위에서 열쇠를 가져다 자물쇠를 풀더니 뒷문을 활짝 열고 심생을 불렀다.

“낭군! 방으로 들어오세요.”

심생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어느새 몸이 먼저 방에 들어와 있었다. 소녀가 다시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마침내 내당으로 가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소녀의 부모는 심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 뜻은 결정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걱정 마세요. 아 아! 부모님은 늙어 가시는데 자식이라고 저 하나뿐이니, 사위를 맞아 그 사위가 살아 계실 적엔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신 뒤엔 제사를 모셔 준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중략)

심생은 이날 밤 소녀와 동침한 이래 저녁에 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소녀의 집은 본래 부유해서 심생을 위해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주었다. 그러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볼까 봐 그 옷을 입지 못했다.

심생은 비밀을 깊이 감추었지만,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마침내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심생은 불만스런 마음에 우울하게 집에 머물다가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 짊어 메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갔다.

선방(禪房)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워 올 즈음,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했다. 뜯어 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다. 소녀는 이미 죽었던 것이다.

- 이옥, 「심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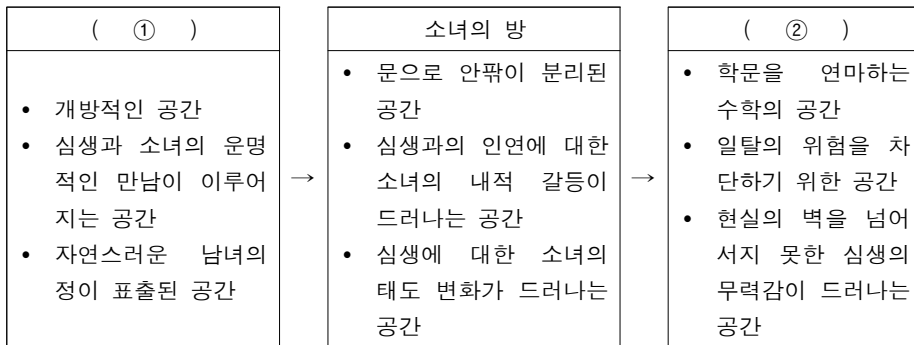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소설에서 공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 「심생전」의 서사는 '심생'과 '소녀'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핵심 사건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전개된다. 먼저, '(①)'은/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두 남녀의 만남은 이야기의 발단이 된다. 이곳에서 우연히 분 바람에 '소녀'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은 두 사람이 운명적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심생'이 사랑을 이루고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소녀'의 '(②)'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는 중심 공간이 된다. 특히 '심생'이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던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소녀'가 뒷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아들이는 장면은, '심생'을 향한 '소녀'의 태도 변화와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심생'이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③)'(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곳에서 '심생'은 소녀의 편지를 받고 비극적인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보기>

선생님 : 소설에서 인물의 행위가 실현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심생전」의 공간은 '심생과 소녀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사건의 전개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 ↓
- 남녀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냄
 - 신분제라는 사회적 제약이 남녀의 애정을 가로막는 불합리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냄.

①: _____ ②: _____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날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 섭취량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 종류별로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한 물질을 인간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에 섭취 가능한 용량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일생 동안 섭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눈 값이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며,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즉 안전 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의 종간 차이를 10으로 두고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두어 두 수를 곱하여 얻는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하루 평균이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라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물질은 섭취량에 따라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특정 물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은 해당 물질의 섭취나 투여에 따라 유해 반응이 나타날 실험 대상의 비율을 나타낸 용량 반응 곡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또한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식품의 섭취량은 식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용량 반응 곡선만으로는 식품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 종류별로 중량당 함유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의 양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과 식품 섭취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한 섭취량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등 특정한 물질을 인간이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에 섭취가능한 용량이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일생 동안 섭취할 경우에 발생하는 만성 독성을 근거로 산출된 값으로, 최대 무독성량을 안전 계수 100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최대 무독성량이란 동물 실험에서 특정 물질과 관련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그 물질의 최대 섭취량이며, 안전 계수는 특정 물질의 안전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계수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의 최대 무독성량이 체중 1kg당 10mg이라면 이 물질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0.1mg이 된다. 즉 안전 계수는 동물 실험과 실제 개개인에 적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계수는 동물과 사람의 종간 차이를 10으로 두고 사람 간의 차이를 10으로 두어 두 수를 곱하여 얻는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양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양의 하루 평균이 일일 섭취 허용량 이하라면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

기출 문제

독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과…」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기출 제시문

<보기2>는 제시문을 읽고 <보기1>을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1>

식품을 제조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료 외에도 다양한 물질이 사용된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물질을 팽창제라고 하는데, 팽창제가 없으면 일반적인 빵을 제조할 수 없다. 안식향산은 매실 등 열매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식품의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수산화나트륨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지만 수분 손실을 방지해 보존성을 높이거나 식품의 산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보기2>

- <보기1>에 언급된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물질 중, 제시문의 [A]에 언급된 검기초제와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이다.
- 제시문의 [A]에 언급된 식품 첨가물 중, <보기1>의 안식향산과 사용 목적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②)이다.
- <보기1>의 수산화나트륨이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후 완전히 제거되어, 완성된 식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식품의 제조 과정에 수산화나트륨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③).

<조건>

- ①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보기1>에서 찾아 쓰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제시문의 [A]에서 찾아 쓸 것.
- ③은 '-다'의 형식으로 작성하되, 2자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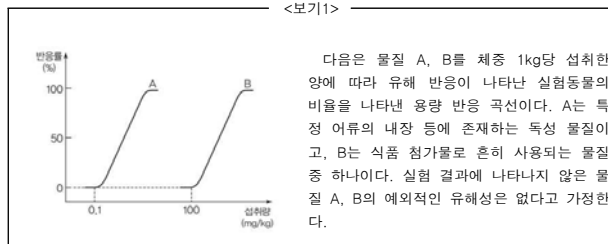
문항 적중

독서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과…」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가천대 시즌6 2회

[문제 2]

<보기1>은 어떤 실험의 용량 반응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을 이해한 것이다. <보기2>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2>

- [물질 A]는 [물질 B]보다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섭취량이 (①), 식품에 첨가될 가능성이 [물질 B]보다 (②) .
- [물질 A]와 [물질 B]는 모두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할 수 있고, [물질 B]는 섭취하는 사람의 체중이 달라지더라도 일일 섭취 허용량이 (③) .

<조건>

- ①은 '-(이)므로'의 인과 형식으로, ②, ③은 '-다'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①, ②는 4자 이내로, ③은 세 어절의 '- 않음 것이다'로 작성할 것. (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둘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려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나)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덴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뜬 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걸가지 생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 층 나무도 되고 오 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키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 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즐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

*손아: 손자.

*재공: 지닌 재주로 이론 공적.

(나)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덴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지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뜬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걸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 층 나무도 되고 오 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키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화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㉞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반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

*손아: 손자.

*재공: 지닌 재주로 이룬 공적.

※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 설명문 쓰기

[초고]

서울이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0여 년 전 서울 한강 이남에 자리 잡은 백제는 약 500년간 화려한 한성 백제 시대를 보냈다. 백제는 고구려에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공주로 도읍을 옮긴 475년까지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 이때가 고대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풍납 토성과 몽촌 토성이 발굴되면서 옛 백제 수도의 모습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백제 초기 왕성인 풍납 토성은 비옥한 평야에 자리 잡았다. 한강을 따라 서해로 진출하기 좋은 위치이다 보니 이 일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풍납 토성은 백제 유적 중 규모가 가장 큰 토성이다. 1925년 대홍수 때 토성 지하에 있던 수많은 유물이 드러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토성 안 흙더미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술을 비롯해 금가락지, 수막새 등이 발견되었다. 풍납 토성을 짓는데 약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백제의 강력한 지배 체제와 우수한 토목 기술을 엿보게 한다. 풍납 토성은 판으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흙과 모래를 층층이 부은 다음, 땅을 다지는 기구인 달구와 방망이로 짙어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판축법'과 나뭇잎, 나뭇가지 등을 깔아 지반을 다지는 '부엽법'으로 만들었다. 풍납 토성은 백제 초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복원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몽촌 토성은 한강 지류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으며, 북쪽 방향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 외곽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둘러 판 못인 해자가 있었으며, 동문과 북문 사이에 약 270m의 외성도 있다. 성 내부에는 움집 터, 독무덤, 저장구덩이 등과 함께 백제 토기를 비롯하여 무기, 낚시바늘, 돌절구 등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한성 백제 시대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글을 쓰게 된 동기: 서울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도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서울의 숨겨진 고대 역사를 알리고 싶어 이 글을 쓰기로 함.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친구들
- 작문 목적: 서울이 백제의 첫 도읍지였음을 알리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 주요 유적을 통해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소개함.
- 글의 개요

처음	1. 서울의 수도로서의 역사적 위상 소개 2. 서울이 백제의 첫 도읍지였음을 알림
중간	1. 한성백제 시대의 시작과 특징 (1) 백제가 한강 이남에 자리 잡고 약 500년간 번영함 (2) 고대 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임을 강조 ㉠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확립 ㉡ 관등제 실시와 관료 조직의 정비 2. 주요 유적지 소개 (1)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위치와 역사적 의미 ㉡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축성 과정과 판축법, 부엽법 등 건설 기술 ㉢ 발굴된 유물(목조 우물 등)과 그 의미 (2) 몽촌토성 ㉠ 자연 지형을 활용한 축성 방식 ㉡ 방어용 성의 특징(해자, 토단 등) ㉢ 발굴 및 복원 과정, 출토 유물, 한성백제 연구의 가치
끝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백제 도읍지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중한 역사 유적 이므로, 이러한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금융 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 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환율 변동×환 노출'로 나타낼 수 있다. 환 노출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외화로 표시된 부채'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의미하는 순 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순 노출의 절댓값이 클수록 환 노출이 크다. 환율 변동과 달리 환 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 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환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헤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환 노출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거래는 이미 끝났거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 중, 선물환* 헤지와 통화 옵션 헤지가 있다. 선물환 헤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 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선물환 계약은 거래 체결 시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환을 선물환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하자. A 기업은 현재 환율은 1,0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3개월 후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3개월 후의 환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되어 예상보다 큰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8억 원이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때 A 기업이 만기가 3개월이고 선도 환율이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하면 3개월 후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환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선물환 헤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 옵션 헤지를 이용할 수 있다. 통화 옵션이란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콜 옵션이라고 하고,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을 풋 옵션이라고 한다. 통화 옵션은 선물환 계약과 유사하나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A 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 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 당 10원인 달러화 풋 옵션을 매입하면 3개월 후의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라면 옵션을 행사하여 달러 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하면 11억 9,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다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외환 시장에 팔아서 11억 9,000만 원보다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선물환: 외환의 종류, 인수·인도의 시기, 금액, 환율 등의 거래 조건을 미리 정해 놓은 외국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 활동에서의 위험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 거래에서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환위험이다.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손실 뿐만 아니라 이익도 예상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노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 환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환위험 관리 기법은 다양한 종류의 환 노출을 관리하여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헤지 기법이라고도 한다. 헤지 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환위험의 종류와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 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 노출을 줄이거나 순 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네팅과 매칭 등이 있다.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와 시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의 중앙 결제 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순차액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 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매칭은 외화 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 노출이 감소된다.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만 아니라 제삼자 간의 거래에도 자주 적용되는데,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노출이 발생하므로 외화 거래의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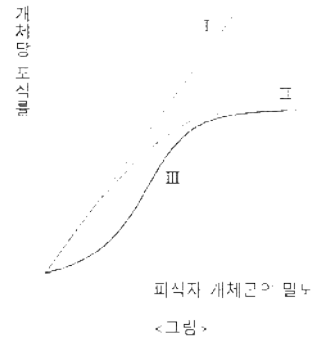
생태계에서 포식자란 잡아먹는 생물을, 피식자란 먹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이 둘의 관계를,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이고,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한 포식자에게 소비된 피식자의 수이다. 두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유형화되며 각각 유형 I, II, III 기능 반응이라 부른다.

이 모형에서는 '총시간'과 '포식 효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총시간은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탐색 시간은 피식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처리 시간은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 잡아먹고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포식 효율은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으로, 유형에 따라 포식 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처럼, 여과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해 섭취하는 포식자에게는 유형 I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이 기능 반응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이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으므로 탐색 시간만 있으며, 피식자를 통해 포만감을 느낄 수도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체당 포식률이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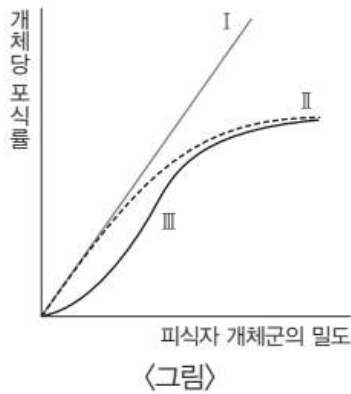
하지만 실제로 포식자는 포만감을 느껴 섭식을 중단하므로 생물 대부분은 유형 II 기능 반응을 따른다. 즉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은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는 포획되는 피식자 수가 증가하면서 탐색 시간은 0에 가까워지고 처리 시간에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유형 III 기능 반응에서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이 초기에는 낮고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 원인으로는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지역인 경우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는 은신처가 피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포식자가 선호해 오던 피식자의 수가 줄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풍부한 다른 피식자로 주의를 돌리는 현상인 '전환'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 먹이로 삼지 않았던 피식자를 우연히 먹어 본 뒤에는 해당 개체를 피식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인 포식자의 '탐색상(探索像)'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태계에서 포식자란 잡아먹는 생물을, 피식자란 먹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이 둘의 관계를,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와 개체당 포식률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 ‘기능 반응 모형’이 등장했다.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피식자의 수이고, 개체당 포식률은 단위 시간당 한 포식자에게 소비된 피식자의 수이다. 두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이 유형화되며 각각 유형 I, II, III 기능 반응이라 부른다.



이 모형에서는 ‘총시간’과 ‘포식 효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총시간은 포식자가 먹이 획득에 소비하는 시간으로 ‘탐색 시간’과 ‘처리 시간’의 합이다. 탐색 시간은 피식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처리 시간은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 잡아먹고 소화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포식 효율은 개체당 포식률을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로 나눈 값으로, 유형에 따라 포식 효율의 특징은 서로 다르다.

플랑크톤을 먹는 고래처럼, 여과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정량의 물에서 피식자를 추출해 섭취하는 포식자에게는 유형 I 기능 반응이 나타난다. 이 기능 반응에서는, 포식자가 자신이 발견한 피식자를 쫓아가서 잡아먹지 않으므로 처리 시간은 없고 탐색 시간만 있으며, 피식자를 통해 포만감을 느낄 수도 없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체당 포식률이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로 표현된다.

하지만 실제로 포식자는 포만감을 느껴 섭식을 중단하므로 생물 대부분은 유형 II 기능 반응을 따른다. 즉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은 초기에는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개체당 포식률의 증가율이 감소한다. 이는 포획되는 피식자 수가 증가하면서 탐색 시간은 0에 가까워지고 처리 시간에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유형 III 기능 반응에서는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개체당 포식률이 초기에는 낮고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그 원인으로는 피식자에게 은신처가 있는 지역인 경우 피식자 개체군의 밀도가 낮을 때는 은신처가 피식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밀도가 높을 때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포식자가 선호해 오던 피식자의 수가 줄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가 풍부한 다른 피식자로 주의를 돌리는 현상인 ‘전환’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지금까지는 먹이로 삼지 않았던 피식자를 우연한 기회로 먹어 본 뒤에는 해당 개체를 피식자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인 포식자의 ‘탐색상(探索像)’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은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굼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타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마침내 노래한다.

- 김창흠, 「낙치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은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굼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읽고 해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낌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타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고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떼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고 했다. 대개 식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고 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마침내 노래한다.

- 김창흠, 「낙치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둥 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변형량/원래 치수'을 변형률이라 한다.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응력이라고 한다.

콘크리트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며,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의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크다.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 $\frac{1}{9} \sim \frac{1}{13}$ 정도이며,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콘크리트로 보를 만들 때에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더 큰 힘을 견디는 철근 콘크리트 보를 만드는 것이다. 철근은 인장 응력이 크며, 콘크리트와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하는데,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한다.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이 된다.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둥 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보의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는 변형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의 변형률과 원래 처수와와의 비인 $\frac{\text{변형량}}{\text{원래 처수}}$ 을 변형률이라 한다.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외력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응력이라고 한다.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 보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가 작아지면 보에 발생하는 내력의 크기는 (①).
- 보의 길이가 길어지고 보의 단면적이 작아지면 보가 견딜 수 있는 외력의 크기는 (②).
-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모두 커지는데, 이때 그 커짐의 정도가 더 큰 것은 (③)이다.

<조건>

- ①, ②는 모두 '-다'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①~③은 모두 4자 이내로 작성할 것.(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글자 수에서 제외함.)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문제 7]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쓰시오.

<보기>

㉠과 ㉡은 모두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단계의 (①)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①)은 기둥 간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같은 재료의 보를 사용한다면 16배나 커지게 된다. 즉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이때 보가 외부로부터의 힘인 ㉠을 받으면 보의 내부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고, 이 저항력을 ㉡이라고 한다. 이때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은 ㉠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에 의해 발생하는 ㉡은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②)가 있다. 따라서 ㉠이 ㉡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①: _____

②: _____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반 일동: 이놈 말뚝아.

말뚝이 1: 이흐 허허— 열수여어. (재물대감이 면상을 때린다.)

둘째양반: 네가 작년 오월 동당시에 나갔던 중놈 말뚝이가 분명허냐?

말뚝이 1: 어허, 영락없소.

둘째양반: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청노새 덜미를 집어내어, 아래위 술질을 잘잘하여 말안장 달안장 층층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해서 박천 도가(都家) 꿀물에 축축이 추겨서 은설함에 가득히 넣고, 은목감이 자족설대 김해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르르 말아, 말 궁둥이에 딱 부치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남문 밖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히 대령하랴드니, 네가 그지간 어디를 갔드냐?

말뚝이 1: 흐흐흐, 허허허, 시안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영을 거역치 못하여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척 노시안님*의 덜미를 쿡 집어내어—.

둘째양반: (말뚝이를 치며) 예끼, 이놈. 수상수하 남녀노소 아동주줄 많이 모였는데, 그 무슨 소리냐?

말뚝이 1: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만양반: (뒤를 돌아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들었네그러.

둘째양반: 여보게, 이 사람아.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허끝을 먹게나.

양반 일동: (합창) 자—, 노새라네. (긋거리에 맞춰 말뚝이와 대무한다*.)

양반일동: 두우. (춤을 그친다.)

만양반: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

양반 일동: 이놈, 말뚝아—.

말뚝이 2: 으흐흐흐—, 열수여. (도령의 면상을 친다.)

만양반: 이려고저러고, 저만치 물러나 양반의 말씀을 들어 보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나?

말뚝이 2: 예, 청노새 덜미를 잡아내어, 아래위에 술질을 잘잘하여 말안장 달안장 칭칭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하여 박천 도가 똥물에 축축이 추기어—.

만양반: (말뚝이 2의 등을 툭 치며) 예끼, 이놈. 그 좋은 담배를 어찌고 어찌해?

말뚝이 2: 어찌 듣는 말씀이요.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 작가 미상, 「강령 탈춤」

(중략)

양반 일동: 이놈 말뚝아.

말뚝이 1: 이흐 허허- 얼수어어. (재물대감이 면상을 때린다.)

둘째양반: 네가 작년 오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허냐?

말뚝이 1: 어허, 영락없소.

둘째양반: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청노새 덜미를 집어내어, 아래위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총총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해서 박천 도가(都家) 꿀물에 촉촉이 추겨서 은설함에 가득히 넣고, 은목감이 자죽설대 김해 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르르 말아, 말 궁둥이에 딱 부치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남문 밖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히 대령하랏드니, 네가 그지간 어디를 갔드냐?

말뚝이 1: 흐흐흐, 허허허. 시안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영을 거역치 못하여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척 노시안님*의 덜미를 쿡 집어내어-.

둘째양반: (말뚝이를 치며) 예끼, 이놈. 수상수하 남녀노소 아동주졸 많이 모였는데, 그 무슨 소리냐?

말뚝이 1: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말양반: (뒤를 돌아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노새를 노시안님으로 들었네 그려.

둘째양반: 여보게, 이 사람아.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혀끝을 먹게 나.

양반 일동: (합창) 자-, 노새라네. (긋거리에 맞춰 말뚝이와 대무한다*.)

양반 일동: 두우. (춤을 그친다.)

말양반: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

양반 일동: 이놈, 말뚝아-.

말뚝이 2: 으흐흐흐-, 얼수어. (도령의 면상을 친다.)

말양반: 이려고저려고, 저만치 물러나 양반의 말씀을 들어 봐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나?

말뚝이 2: 예, 청노새 덜미를 잡아내어, 아래위에 솔질을 찰찰하여 말안장 달안장 칭칭 달아 구안장 은립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상모 검침일치 채상모라, 성천에 가 담배 무역하여 박천 도가 똥물에 촉촉이 추기어-.

말양반: (말뚝이 2의 등을 툭 치며) 예끼, 이놈. 그 좋은 담배를 어찌고 어찌해?

말뚝이 2: 어찌 듣는 말씀이요.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양반 일동: (합창) 꿀물이라네. (긋거리에 맞춰서 일제히 대무한다.)

- 작자 미상, 「강령 탈춤」



약술형 논술전형
가천대학교 수학 영역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기출 문제

기출 적중

가천대 시즌6 4회 11번

상수 $a (a > 1)$ 와 양수 $t (t > 1)$ 에 대하여 곡선 $y = \log_a x + 3$ 과
 곡선 $y = \log_{\frac{1}{a}} x + 1$ 이 만나는 점을 A 라 하고, 직선 $x = t$ 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B, C 라 하자. $\overline{AB} = \frac{10}{3}$ 이고 삼각형 ABC 의 넓이가 $\frac{16}{3}$ 일 때, a 와 t 의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점 B 와 점 C 의 y 좌표는 정수이다.)

상수 $a (a > 0)$ 에 대하여 두 곡선
 $y = 2\log_2(x+a), y = 2\log_2(a-x)$
 가 만나는 점을 A 라 하자. 곡선 $y = 2\log_2(x+a)$ 위의 점 B,
 곡선 $y = 2\log_2(a-x)$ 위의 점 C 에 대하여 삼각형 ABC 가 한 변의 길이가 $2a$ 이고,
 한 변이 x 축과 평행한 정삼각형일 때, a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frac{1}{4} < x < \frac{3}{4}$ 에서 기울기가 양수이고 점 $(\frac{1}{4}, 0)$ 을 지나는 직선과
 함수 $y = \tan 2\pi x$ 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a, b ($a < b$) 라 하자.
 $a + 2b = \frac{7}{6}$ 일 때, $\sin(2a+b)\pi$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양수 k 에 대하여 $0 < x < 2\pi$ 에서 함수 $y = \tan x$ 의 그래프가 직선 $y = k$ 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α_1, α_2 ($\alpha_1 < \alpha_2$) 라 하고, 직선 $y = -k$ 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α_3, α_4 ($\alpha_3 < \alpha_4$) 라 하자. $\sin(\alpha_4 - 2\alpha_1) = \frac{1}{2}$ 일 때,
 $\cos(\alpha_2 - 2\alpha_3)$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다항함수 $f(x)$ 가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 + x^3}{x^2} = 5, \quad \lim_{x \rightarrow 0} \left\{ \left(x^2 - \frac{1}{x} \right) f(x) \right\} = 4$$

를 만족시킬 때, $\lim_{x \rightarrow 1} \left\{ \left(x^2 - \frac{1}{x} \right) \frac{1}{f(x)} \right\}$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두 다항함수 $f(x), g(x)$ 가

$$\lim_{x \rightarrow 1^+} (x-1)^2 f\left(\frac{1}{x-1}\right) = 1, \quad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 - g(x)}{x-1} = 1$$

을 만족한다. $f(0) = 0, f(2) = -4, g(0) = 3$ 일 때, $g(-2)$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곡선 $y = f(x)$ 위의 점 $(2, f(2))$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 = -4x + 24$ 이다.

(나) $f(0) = 14$

함수 $f(x)$ 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 의 극댓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가) 곡선 $y = f(x)$ 위의 임의의 점 $(x, f(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 = 3x^2 + a$ (a 는 상수)이다.

(나) 곡선 $y = f(x)$ 가 점 $(1, f(1))$ 에서 x 축에 접한다.

$a > 0, b > 0$ 이고, 함수 $f(x) = a \sin \frac{x}{3b} + c$ 의 주기가 6π , 최솟값이 -2 이다.
 $f\left(\frac{\pi}{2}\right) = \frac{3}{2}$ 일 때, $a \times b \times c$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c 는 상수이다.)

세 상수 a, b, c ($a < 0 < b$)에 대하여 함수 $f(x) = a \cos\left(bx - \frac{\pi}{3}\right) + c$ 의 최댓값은 5 이고, 주기는 π 이다. $f\left(\frac{\pi}{3}\right) = 4$ 일 때, $3 \times (a + b + c)$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첫째항이 1 인 등차수열 $\{a_n\}$ 에 대하여 $\sum_{n=1}^{10} a_n = 100$ 일 때, $\sum_{n=1}^{10} \frac{2}{a_n a_{n+1}}$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sum_{k=1}^n \frac{1}{k(k+1)} + \sum_{k=1}^n \frac{2}{n(n+1)} = \frac{6}{5}$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수열 $\{a_n\}$ 에 대하여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하자. $S_1 = 3$ 이고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S_{n+1} = 3S_n + 2$ 를 만족시킬 때, $\log_3 \frac{8}{a_6}$ 의 값과 S_7 의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이라 하자.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S_n = \frac{a_2}{n} + 2n$$

일 때, $18 \times a_4$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overline{BC} = 4$ 인 삼각형 ABC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overline{AB} , \overline{CA} 와 $\sin B$ 의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가) $3 \sin A = 2 \sin C$

(나) $\sin A + 2 \sin C = 2 \sin B$

둘레의 길이가 60 인 삼각형 ABC 에서 $\sin A : \sin B : \sin C = 7 : 5 : 8$ 일 때, 삼각형 ABC 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간 t ($t \geq 0$)에서의 속도가 각각

$$v_1(t) = 3t^2 + 4t + 10, v_2(t) = 18t - 5$$

이고, 시간 $t=0$ 일 때 점 P의 위치를 p , 점 Q의 위치를 q 라 하면 $p < q$ 이다.

두 점 P, Q는 출발한 후 시간 $t=a$ 일 때와 시간 $t=b$ 일 때만 만난다. 시간 $t=a$ 와 $t=b$ 에서 점 P의 가속도를 각각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1 < a < b$)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Q의 시간 t ($t \geq 0$)에서의 위치는 각각

$$f(t) = \frac{1}{3}t^3 + \frac{3}{2}t^2 + 3, g(t) = -t^2 - 6t + 8$$

이다. 두 점 P, Q의 속도의 합이 0이 되는 순간 두 점 P, Q의 가속도는 각각 p, q 이다. $p \times q$ 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 = \begin{cases} -2a_n + 7 & (a_n < 4 \text{ 인 경우}) \\ a_n - n + 5 & (a_n \geq 4 \text{ 인 경우}) \end{cases}$$

를 만족시킨다. $a_6 = 11$ 일 때, $a_1, a_4, \sum_{k=1}^{10} a_k$ 의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sum_{n=1}^{10} a_n$ 의 값을 구하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가) a_{2n-1} = n^2 + 2n$$

$$(나) a_{2n+1} - a_{2n} = 2$$

(나)

순자는 공자의 악론(樂論)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악(樂)*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음(德音)을 장려하고,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익음(溺音)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덕음을 통해 유가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王道政治),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악(樂): 음악.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목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음(德音)을 장려하고,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악음(溺音)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덕음을 통해 유가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 정치(王道政治),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제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점 11.5점)

헤럴드 플로어는 1942년부터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을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 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를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이라고 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①이러한 가설은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플로어는 한해살이풀인 아마(亞麻)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어 연구하였다.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고,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면 병증이 나타나 죽어 버렸다. 플로어는 병에 걸려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병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교배해 보았는데, 이 잡종 제1세대는 모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플로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병저항성 유전자를 *R*이라고 불렀다. 다음으로 플로어는 녹병균에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 아마가 병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병저항성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녹병균의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저항성이 무력화된 것이다. 플로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의 녹병균에 아마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유전자의 이름을 *Avr*이라고 하였다.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에 병저항성 유전자 *R*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녹병균에도 이 *R* 유전자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Avr*이 있어야 한다. 아마나 녹병균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그 녹병균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이다. 그러나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체가 식물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Avr* 유전자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와 녹병균 사이에서만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 확인되었고,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병원체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병원체의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프리 댕글의 지그재그 이론, 일명 Z 이론이다. Z를 옆으로 누였을 때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식물의 병저항성을 나타내는데, 댕글은 이 옆으로 누인 Z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설명한다.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하여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독성 방어 물질에는 페놀계, 테르펜계, 알칼로이드계가 있는데, 커피의 카페인이거나 고추의 캡사이신은 대표적인 알칼로이드계 방어 물질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러한 1차 방어 체계에 의해 차단되는데, 이에 따라 식물의 병저항성이 높아지고, 옆으로 누인 Z의 첫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적응된 병원체는 식물의 1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와 식물체를 감염시킨다.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저항성이 낮아져 옆으로 누인 Z의 아래로 내려간 두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이에 식물은 침투해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하여 1차 방어 체계보다 더 강력한 2차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각종 효소나 항생 물질인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식물의 병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누인 Z의 세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일부 병원체는 이러한 식물의 2차 방어 체계마저 뚫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다. 이로 인해 식물의 병저항성은 다시 낮아져 네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2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식물이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이 (⊙)이다. (⊙)이/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하고 나면 식물은 매우 빠르고 강한 방어 체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작용으로 인해 식물의 병저항성은 다시 높아진다.

*기작: 생물의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럴드 플로어는 1942년부터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을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 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를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이라고 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플로어는 한해살이풀인 아마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어 연구하였다.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고,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면 병증이 나타나 죽어 버렸다. 플로어는 병에 걸려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교배해 보았는데, 이 잡종 제1세대는 모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플로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병저항성 유전자를 *R*이라고 불렀다. 다음으로 플로어는 녹병균에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 아마가 병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병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녹병균의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저항성이 무력화된 것이다. 플로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의 녹병균에 아마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유전자의 이름을 *Avr*이라고 하였다.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에 병저항성 유전자 *R*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녹병균에도 이 *R*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Avr*이 있어야 한다. 아마나 녹병균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그 녹병균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이다. 그러나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

㉔)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병원체가 식물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Avr* 유전자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와 녹병균 사이에서만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 확인되었고,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병원체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병원체의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프리 댕글의 지그재그 이론, 일명 Z 이론이다. Z를 옆으로 누였을 때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식물의 병저항성을 나타내는데, 댕글은 이 옆으로 누인 Z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설명한다.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하여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독성 방어 물질에는 페놀계, 테르펜계, 알칼로이드계가 있는데, 커피의 카페인이나 고추의 캡사이신은 대표적인 알칼로이드계 방어 물질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러한 1차 방어 체계에 의해 차단되는데, 이에 따라 식물의 병저항성이 높아지고, 옆으로 누인 Z의 첫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적응된 병원체는 식물의 1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와 식물체를 감염시킨다.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저항성이 낮아져 옆으로 누인 Z의 아래로 내려간 두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이에 식물은 침투해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하여 1차 방어 체계보다 더 강력한 2차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각종 효소나 항생 물질인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식물의 병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누인 Z의 세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일부 병원체는 이러한 식물의 2차 방어 체계마저 뚫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다. 이로 인해 식물의 병저항성은 다시 낮아져 네 번째 꼭짓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2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식물이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이 *R* 유전자이다. *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하고 나면 식물은 매우 빠르고 강한 방어 체계를 활성화한다. 이것을 *R* 유전자 매개 면역 방어라고 하는데, 나뭇잎의 노랗게 말라 버린 작은 반점들은 이러한 방어 작용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작용으로 인해 식물의 병저항성은 다시 높아진다.

기출 문제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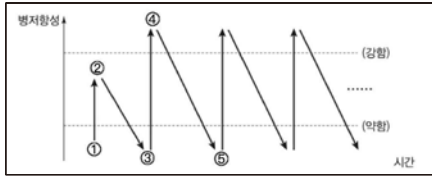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기출 제시문

(1) 뒷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근거를 아래의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50자 내외로 쓰시오. (5.1점)

<보기>

왜냐하면 유전자-유전자 상호 작용 가설은 ()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뒷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에서 ㉣로 진행되는 식물의 생리적 기작을 70자 내외로 쓰시오. (4.3점)



(3) ㉠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뒷글에서 찾아 쓰시오. (2.1점)

문항 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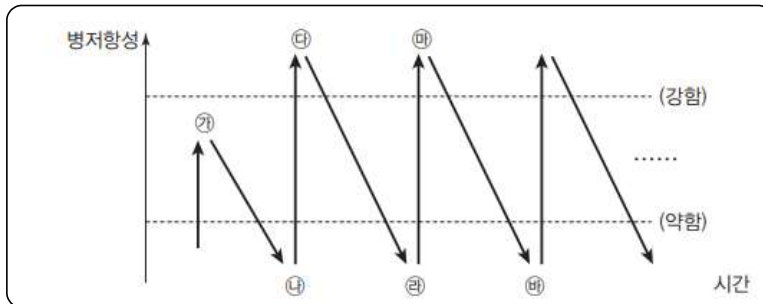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국민대 파이널 4회

(1) 뒷글의 내용을 토대로 ㉠에 들어갈 내용을 50자 이내(띄어 쓰기 포함)의 한 문장으로 쓰시오. (5.6점)

(2) 뒷글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보기1>을 해석한 <보기2>의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각 1.1점)

<보기1>



<보기2>

식물은 병원체 침입 시 단계적인 방어 체계를 통해 병저항성을 유지한다. 먼저 1차 방어 체계에서는 병원체의 접촉 신호를 인식해 페놀계, 테르펜계, 알칼로이드계 등의 (㉠)을 분비한다. 커피의 카페인이나 고추의 캡사이신처럼, 이는 식물의 생존을 위한 화학적 방어 수단인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보기>1의 ㉡ 지점에 도달하지만, 일부 병원체는 이를 뚫고 침입해 저항성이 약화되며 ㉣ 지점에 도달한다. 이에 식물은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해 2차 방어 체계를 가동하고, 세포벽 분해 (㉢)나 항생 물질을 분비해 병원체를 제거함으로써 병저항성은 다시 ㉣ 지점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병원체가 (㉣) 단백질을 발현하면 이 방어도 무력화되어 ㉤ 지점까지 병저항성이 낮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은 R 유전자를 진화적으로 획득하여 병원체 단백질을 감지하고, R 유전자 (㉣)을 일으켜 병원체를 신속히 차단한다. 이 과정에서 잎이 마르는 등 국소적 손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식물의 병저항성은 다시 강화된다.

[문제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9점)

SF(Science Fiction)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학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 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설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낯설'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끼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설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낯설을 만들어 내는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작품 속의 세계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수빈은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설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설음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SF의 낯설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뎀(novum)'을 이야기하였다. 노뎀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뎀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을/를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뎀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빈은 노뎀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 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낯선 것들은 개연성을 갖추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 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이러한 노뎀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F(Science Fiction)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설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낯설'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설은 (㉡)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수빈은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설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설음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SF의 낯설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뎀(novum)'을 이야기하였다. 노뎀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뎀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뎀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빈은 노뎀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에 기반한다.

[문제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7점)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집합적 의미의 외적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성찰 차원의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과 이라고 한다.

심의 민주주의자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심의는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면 의사 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익명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을/를 가능하게 하여 선순환을 일으킨다.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나)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개인의 성찰 차원의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 이라고 한다.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집합적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 아니라, 심의는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다양하게 공유되면 의사 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㉕)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㉖) 때문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기출 문제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기출 제시문

(1) ㉠에 들어갈 말을 뒷글에서 찾아 3어절로 쓰시오. (2.2점)

(2) <A> 단락을 이끄는 문장 ㉡를 <보기>와 같이 쓸 때, ㉢와 ㉣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4.8점)

<보기>

그렇다면 심의 민주주의라는 (㉢)와/과 거대 사회라는 (㉣)을/를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항 적중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국민대 파이널 2회

(1)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각 1.3점)

(2)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각 0.7점)

(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형식’과 ‘실질’이라는 두 개념을 이용하여 100자 이내(띄어 쓰기 포함)의 한 문장으로 쓰시오. (4점)

<보기>

민주주의의 이상은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심의를 거쳐 공공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단순한 다수결 투표는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무지,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진정한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투표 이전의 ‘의견 교환과 숙고’ 과정을 중시하며, 심의를 통해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의사 결정론은 이러한 이상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가로막히는지를 드러낸다. 신엘리트론의 관점에 따르면 실제 정책 결정은 시민의 심의나 여론에 의해 다원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사안이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즉, (㉡)

공론 조사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어 시민이 학습과 토론을 거친다 하더라도, 의제가 처음부터 엘리트의 손에 의해 걸러진다면 그 심의는 ‘허용된 범위 안의 토론’에 불과하다. 무의사 결정론이 지적하는 ‘의제 설정 단계의 권력 작용’은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인, 모든 사회 문제가 모든 사회 문제가 평등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무너뜨린다.

따라서 두 지문은 서로 상반된 층위에서 민주주의를 비추지만, 함께 읽을 때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드러난다. 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집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무의사 결정론은 “누가 그 판단의 범위를 정하고, 어떤 문제는 처음부터 논의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전자가 ‘참여의 질’을, 후자가 ‘참여의 조건’을 문제 삼는 것이다.

(나)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 있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 선택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효용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등이 있다.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0%의 확률로 90만원을 받는 선택지와 10%의 확률로 1,000만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다면, 두 선택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댓값은 받을 돈에 확률을 곱하면 되므로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이다. 받는 돈의 양과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확실성의 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이 있다. 손실 회피란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나 손실과 관련된 상황이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반사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하는데, 이를 고립 효과라고 한다. 고립 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모든 선택지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 공통으로 제시된 조건은 크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와 차이가 있는 개별 선택지에만 존재하는 요소에 더 집중한다.

전망 이론에서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중 보유 효과라는 것도 있다. 보유 효과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더 높은 (\ominus)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효과가 발생하면 특정 대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진다. 보유 효과에 의해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것들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면 가급적 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 있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 선택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효용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확실성의 효과, 손실 회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보유 효과 등이 있다.

전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0%의 확률로 90만 원을 받는 선택지와 1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다면, 두 선택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기댓값은 받을 돈에 확률을 곱하면 되므로 각각 90만 원과 100만 원이다. 받는 돈의 양과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 선택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확실성의 효과라고 한다.

하지만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이 있다. 손실 회피란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의 확실성에 대한 선호는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나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반사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득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확실성의 효과에 따라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손실 회피에 따라 위험 선호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문제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10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흄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맛드려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먼은 흄, 후설과 달리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그가 보기에는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흄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 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아래로 환원하기’,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위로 환원하기’,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지 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흄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맛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우리가 개를 볼 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후설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하먼은 흄과 후설 모두 (☉) 지적하였다.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흄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 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아래로 환원*하기',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위로 환원하기',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만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인지 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환원: 잡다한 사물이나 현상을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 바꿈. 또는 그런 일.

[문제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점 11점)

(가)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유가 학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라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A>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의 유가 학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禮)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뜨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非樂論)을 전개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공자는 ‘악(樂)’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유가 학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당대의 유가 학론에 따라 기악,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禮)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뜨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非樂論)을 전개하였다.

[문제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9.5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에서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빨간 사과가 빨강계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는 광학 이론을 제시하였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나뉘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보인다. 특정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킨다. 즉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괴테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색은 (㉠)이고, 가장 주관적인 색은 (㉡)이며, 그 중간 단계의 색은 (㉢)이라고 하였다.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을 말하는데,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그는 선명한 유색(有色)의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으로 갖다 대었을 때의 사례를 제시한다.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유색 종이 황색이었다면 청자색이, 주황색이었다면 청색이,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난다. 이때 앞의 색을 유도색이라 하고 뒤의 색을 피유도색이라고 한다. 눈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다.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생리색인 것이다.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리색이다.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물리색에는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절색이다. 이것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태양의 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황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빛은 점차 주홍색을 띠다가 마침내 홍옥색으로 변한다. 이와 달리 무한한 공간의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더욱 밝고 열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욱 어둡고 짙어지게 된다. 괴테는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불그스레하게 보이고,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화학색은 물리색보다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이다.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주로 산과 알칼리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황색과 주홍색은 산의 속성을 갖고 청색과 청적색은 알칼리의 속성을 갖는데, 강철을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 청색에 이르는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것은 강철이 산화, 강산화 과정을 거쳐 약산화, 탈산화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상을 (㉣)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울러 괴테는 적색은 정열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색을 위엄을 나타내는 색으로 보고, 녹색에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간과하였던 심리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에서는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빨간 사과가 빨갱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하여 이러한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나뉘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보인다. 특정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킨다. 즉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괴테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이 중에서 생리색이 가장 (㉢)적인 색이고 화학색이 가장 객관적인 색이며, 물리색은 그 중간 단계의 색이라고 하였다.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을 말하는데,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눈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다.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생리색인 것이다.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리색이다.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물리색에는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절색이다. 이것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태양의 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황색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무한한 공간의 (㉣)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이것은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더욱 밝고 열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욱 어둡고 질어지게 된다.

화학색은 물리색보다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이다.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주로 산과 알칼리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다.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울러 괴테는 적색은 정열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괴테는 뉴턴이 간과하였던 심리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 지어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점 9점)

(가)

국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힘의 이해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 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 균형론이 있다.

세력 균형론에서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후자의 측면에서 세력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경제 발전, 군비 증가,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국가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 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다.

세력 균형론에서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특정의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후자의 측면에서 세력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 군비 증가,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국가 외부적으로는 ㉡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즉 (㉠)적인 세계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 등이 있다.

[문제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10.5점)

(가)

모사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행위로 원화(原畵), 원도(原圖) 등 기존 회화 및 서(書)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모사라는 단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었다.

모사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언급은 6세기 초 중국 남제(南齊)의 사혁(謝赫)이 저술한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화품록』은 화가 품평서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6가지 원칙인 화육법(畵六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전이모사(轉移模寫)가 모사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이모사는 선인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면서 그 기법을 체득한다는 의미이다. 회화에서 모사를 통한 (㉠)은/는 현재에도 꾸준히 사용될 만큼 중요한 방법이다. 이처럼 모사의 어원은 학습의 의미로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이나 복사 기술이 없던 시절에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사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유교 국가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는 직접적인 추모의 대상으로 중시되던 영정(影幀)이 모사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곳에 배향되었던 인물의 경우 기존의 영정을 복제의 의미로 모사하여 여러 점을 제작한 뒤 새로운 봉안처에 봉안하였다. 영정 모사는 복제의 의미와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인위적으로 손상되는 영정의 원형을 잃지 않으려는 보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보존적 의미의 영정 모사는 원형의 형태와 똑같이 모사하기도 하지만, 얼굴의 형태를 제외한 바닥과 의복 등은 당시의 화법을 반영하여 모사하기도 했다.

예로부터 동양 회화에서 사용된 모사의 방법으로는 ‘모(模)’, ‘임(臨)’, ‘방(倣)’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원화를 똑같이 그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다. ‘모’는 원작 위에 얇은 종이나 비단을 놓고 비쳐 나오는 형상을 그려 내는 것으로, 원화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기법을 터득하게 된다. 모사의 결과가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똑같아 조선 시대에는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작품을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임’은 원작을 옆에 두고 보면서 종이에 옮겨 그리는 것으로, 모사를 하는 사람의 손과 눈을 모두 훈련할 수 있어 기법의 심화된 학습이 가능했다. ‘임’의 방법은 원화의 외형을 보면서 따라 그리기 때문에 원화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모’의 방법으로 그려진 형태만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으며, 원화에 구속되지 않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게 된다. ‘방’은 그림을 자세히 관찰한 후 원작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해석하여 이를 새롭게 재구성해 종이에 그리는 것으로, 배운다는 의미가 강한 모사 방법이다. 형태적으로는 원화와 비슷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리는 화가의 생각과 개성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원화와 차별되는 창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

*남제: 중국 남조(南朝) 시대의 두 번째 왕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사는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행위로 원화(原畵), 원도(原圖) 등 기존 회화 및 서(書)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여 그것을 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모사라는 단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었다. 모사에 대한 최초의 문헌적 언급은 6세기 초 중국 남제(南齊)의 사혁(謝赫)이 저술한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화품록』은 화가 품평서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6가지 원칙인 화육법(畵六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전이모사(轉移模寫)가 모사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전이모사는 선인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면서 그 기법을 체득 한다는 의미로, 학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화에서 모사를 통한 학습은 현재에도 꾸준히 사용될 만큼 중요한 학습 방법이다. 이처럼 모사의 어원은 학습의 의미로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이나 복사 기술이 없던 시절에 시간적·공간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사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유교 국가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는 직접적인 추모의 대상으로 중시되던 영정(影幀)이 모사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곳에 배향되었던 인물의 경우 기존의 영정을 복제의 의미로 모사하여 여러 점을 제작한 뒤 새로운 봉안처에 봉안하였다. 영정 모사는 복제의 의미와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인위적으로 손상되는 영정의 원형을 잃지 않으려는 보존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보존적 의미의 영정 모사는 원형의 형태와 똑같이 모사하기도 하지만, 얼굴의 형태를 제외한 바닥과 의복 등은 당시의 화법을 반영하여 모사하기도 했다. 이는 선조의 얼굴은 후세에 그대로 전하되 당시의 상황에 맞게 화법을 반영하여 모사한 것으로 재창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동양 회화에서 사용된 모사의 방법으로는 ‘모(模)’, ‘임(臨)’, ‘방(倣)’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원화를 (㉠), 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다. ‘모’는 원작 위에 얇은 종이나 비단을 놓고 비쳐 나오는 형상을 그려 내는 것으로, 원화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기법을 터득하게 된다. 모사의 결과가 원본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똑같이 조선 시대에는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 작품을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활용 되었다. ‘임’은 원작을 옆에 두고 보면서 종이에 옮겨 그리는 것으로, 모사를 하는 사람의 손과 눈을 모두 훈련할 수 있어 기법의 심화된 학습이 가능했다. ‘임’의 방법은 원화의 외형을 보면서 따라 그리기 때문에 원화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모’의 방법으로 그려진 형태만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으며, 원화에 구속되지 않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게 된다. ‘방’은 그림을 자세히 관찰한 후 원작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해석하여 이를 새롭게 재구성해 종이에 그리는 것으로, 배운다는 의미가 강한 모사 방법이다. 형태적으로는 원화와 비슷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리는 화가의 생각과 개성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원화와 차별되는 창작품이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

하지만 모사본의 무수한 제작 속에서 모사 작업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어떤 대상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모사본을 통해 대상의 표현이 이루어진다는 점, (㉡)적 창작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모사는 이미 그려진 작품을 보고 이를 베껴 그리는 방식이므로 실상의 묘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묘사의 오류와 물상의 왜곡이 거듭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와 왜곡은 당시의 문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긍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머리에 꼬리털을 단 공작 형상은 조선 시대 회화에 지속적으로 등장 한다. 공작새는 명예와 덕을 상징하는데, 화려한 문양을 가진 꼬리털을 머리에 단 모습은 부귀영화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머리에 꼬리털을 단 공작 형상은 묘사로 보자면 오류이며 비현실적 왜곡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현실적 묘사는 화려한 화면을 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화가의 창의적 측면이 더해져 형태 왜곡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모사가 반복되며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모사를 통한 물상의 왜곡 속에 담긴 특정한 이미지를 욕망했던 당시의 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문제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7.5점)

국가를 통합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심각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때 채택하는 전형적인 안보 정책의 수단이 동맹이다. 동맹은 국가 간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이다.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맹은 어디까지나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는 (㉠)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다.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 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에 서구 유럽이 협력을 하는 국제 정치 상황이 나타났다.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었으므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슈웰러는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방어적 편승, 자칼식 편승, 영합적 편승으로 나누었다.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자칼식 편승은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한다.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리의 배당을 얻기 위해 승자 측에 편승하는 것이다.

동맹의 개념과 전략을 통해서 동맹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맹 관계에서는 영원한 패권국이나 강대국도,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자국의 국익만이 존재한다. 또한 동맹을 맺은 국가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호의적인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맹 전략은 자국의 상황과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하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힘과 국가 간 힘의 분포 혹은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특히 강대국 간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 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세력 균형론과 패권 안정론이 있다.

세력 균형론에서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이 배분된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특정한 어떤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후자의 측면에서 세력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즉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의 국력, 특히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 군비 증강, 전략 개발이라는 수단을, 국가 외부적으로는 ㉔동맹이라는 수단을 추구한다. 이 이론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황, 즉 (㉑)적인 세계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해야 하는 체계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균형자형, 비스마르크형, 냉전형 등이 있다.

첫 번째로 균형자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의 균형자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균형자의 힘을 더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그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형으로 예상되는 침략국이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 동맹을 맺어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가령 F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이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B국, C국과 동맹을 맺고, A국은 또 다른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D국과도 동맹을 맺어 F 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냉전형은 서로 적대하는 당사국 간의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상태이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가 대표적 예이다.

한편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한 한 강대국이 국제 질서에서 패권국이 되고,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국제 관계를 무정부 상태로,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과 중강국 그리고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㉒)적 관계로 본다.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 등과 같은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 주고, 안전 및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는 현상 타파를 기도하려는 국가의 출현을 (㉓)해 국제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창출한다.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에서의 (㉔)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본다.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 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기출 문제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기출 제시문

- (1)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뒷글에서 찾아 쓰시오. (2.9점)
- (2) 맥락을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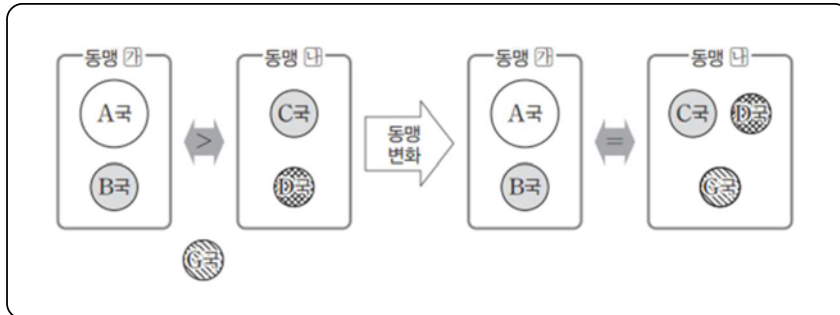
문항 적중

독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국민대 파이널 3회

- (1)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각 0.6점) (㉠은 3음절, ㉡~㉢은 각 2음절)
- (2) 아래 <보기1>을 보고 <보기2>의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각 1점)

<보기1>



<보기2>

<보기1>의 국제 정세 유형은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의 (㉠)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더해서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보기1>의 국제 정세에서 G국이 동맹 ㉡에 가입하여 안정적 정세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G국은 제3의 세력으로서 (㉢)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국은 국제 정세의 이치 상 C국이나 D국과 (㉡)적인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힘, 국가 간의 힘의 관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3) 뒷글의 밑줄 친 ㉠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보기>를 이해하고 ㉡에 들어갈 말을 100자 이내(띄어 쓰기 포함)의 문장으로 쓰시오. (4.6점)

<보기>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다.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항하여,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에 서구 유럽이 (㉠) (㉡) . 이는 힘이 강한 국가에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었으므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나)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을/를 양도받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복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였고,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다.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좌에 오르는 의식,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복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였고, 실제로 (㉠)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였다.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를 받고 어좌에 오르는 의식, 즉위 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점 8점)

(가)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중략)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일망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벤담은 일망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 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그는 (㉠)을/를 내면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측화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의 @‘패놉티콘’(일방 감시 감옥)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의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즉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 두는 기능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 놓고 뒤의 두 가지를 없애 버린 형태다. 일방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중앙 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이로부터 일방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도 옮겨 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그는 권력관계를 (⊖)화하여 일인이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 미셸 푸코, 「근대 감옥의 원리와 사회」

(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에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내에 근거하고 있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약술형 논술전형 국민대학교 수학 영역

2026 씨에스엠 약술형논술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기출 문제

기출 적중

국민대 파이널 1회 9번

다항함수 $f(x)$ 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begin{aligned} \text{(가)} \quad & \lim_{x \rightarrow \infty} \frac{3x^3 + 5x + 2}{f(x)} = \frac{1}{2} \\ \text{(나)} \quad & \lim_{x \rightarrow 0} \frac{f'(x)}{x} = 4 \end{aligned}$$

- (1) $f(x)$ 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구하시오. (3.4점)
- (2) $f'(1)$ 의 값을 구하시오. (4.6점)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곡선 $y = f(x)$ 위의 점 $(2, f(2))$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 = 2x - 4$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lim_{x \rightarrow 1} \frac{f(x) - f(2)}{x - 1} = \lim_{x \rightarrow 2} \frac{f(x) - f(2)}{x - 2}$ 일 때, $f(1) + f'(1)$ 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 (2) 두 상수 $a (a \neq 0), b$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2} \frac{f(x)}{a(x^2 - bx)} = \frac{1}{3}$ 일 때, $a + b$ 의 값을 구하시오. (4.5점)

기출 적중

국민대 파이널 4회 10번

다항함수 $f(x)$ 가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x^3 - 1} = 3, \lim_{x \rightarrow 2} \frac{f(x)}{(x - 2)^2} = 8$ 을 만족한다. 곡선 $y = f(x)$ 위의 점 $(1, A)$ 에서의 접선 $y = Bx + C$ 가 점 $(5, D)$ 를 지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B, C, D 는 상수이다.)

- (1) 다항함수 $f(x)$ 를 구하시오. (4점)
- (2) A 의 값을 구하시오. (2점)
- (3) $B + C$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4) D 의 값을 구하시오. (2점)

자연수 n 에 대하여 $y = x^2$ 와 $y = -x^2 + 2nx + n$ 이 만나는 교점을 각각 $A_n(\alpha_n, \alpha_n^2)$, $B_n(\beta_n, \beta_n^2)$ 라 하고 점 O 는 원점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lpha_n < \beta_n$)

- (1) $\beta_n - \alpha_n = \sqrt{f(n)}$ 일 때, $f(5)$ 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 (2) $y = x^2$ 과 $y = -x^2 + 2nx + n$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_n 이라 할 때, $S_2 = C\sqrt{2}$ 를 만족한다. 이때, 유리수 C 의 값을 구하시오. (2.7점)
- (3) 삼각형 OA_nB_n 의 넓이를 T_n 이라고 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S_n}{nT_n} = D$ 인 실수 D 의 값을 구하시오. (2.8점)

자연수 n 에 대하여 곡선 $y = x^2 + nx + n$ 과 직선 $y = -2x$ 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α_n, β_n 이라 하자.

- (1) $\alpha_m + \beta_m = -5$ 일 때, 곡선 $y = x^2 + mx + m$ 과 직선 $y = -2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3점)
- (2) $\lim_{n \rightarrow \infty} (\sqrt{\alpha_n^2 + \beta_n^2} - \alpha_n \beta_n) = A$ 일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3) (2)에서 구한 상수 A 와 임의의 실수 x 에 대하여 방정식

$$\int_A^x (t^2 - \alpha_n \beta_n) dt = 0$$

의 서로 다른 실근이 a, b 뿐일 때, $a + b + n$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 b$) (5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에서 속도 $v(t)$ 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가) $v(t) = t^3 - At^2 + Bt$ 이다.
- (나) $t = 1$ 일 때, 가속도는 0이다.
- (다) $t = 1$ 일 때와 $t = 3$ 일 때, 점 P의 위치가 같다.

- (1)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2.6점)
- (2) 상수 B의 값을 구하시오. (2.6점)
- (3) $t = 0$ 에서 $t = 1$ 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2.8점)

두 실수 a, b 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t \geq 0)$ 에서의 위치가

$$x(t) = t^3 - 4t^2 + at + b$$

이다. 양의 실수 k 에 대하여 시각 $t = 0$ 부터 $t = k$ 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f(k)$ 라 하자.

- (1) $a = 0, b = -2$ 일 때, $f(k) - x(k)$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3점)
- (2) 모든 양의 실수 k 에 대하여 $x(k) = f(k)$ 일 때, $a + b$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4점)
- (3)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α 의 최솟값이 2일 때, $a - b$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t \geq \alpha$ 인 모든 실수 t 에 대하여 $x(t) = f(t)$ 이다.

공차가 2 인 등차수열 $\{a_n\}$ 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k \geq 2$ 인 자연수)

- (가) $a_k = 0$
- (나) $a_1 + a_2 + a_3 + \dots + a_m = 120$
- (다) $|a_1| + |a_2| + |a_3| + \dots + |a_m| = 144$

- (1) $a_1 + a_2 + \dots + a_{k-1}$ 의 값을 구하시오. (4.3점)
- (2) $a_1 = Ak + 2$ 일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시오. (3.2점)
- (3) m 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1} = \begin{cases} 2a_n^2 & (a_n < 0) \\ a_n - n - 1 & (a_n \geq 0) \end{cases}$$

을 만족시킨다.

- (1) $a_3 = 1$ 일 때, $\sum_{n=1}^5 a_n$ 의 값을 구하시오. (2점)
- (2) $-10 < a_1 \times a_2 \times a_3 < 0$ 이 되도록 하는 모든 a_1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3.5점)
- (3) $a_9 = 8$ 이 되도록 하는 모든 a_1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4.5점)

등비수열 $\{a_n\}$ 과 수열 $\{b_n\}$ 이

$$\sum_{n=1}^3 a_n = 26, \sum_{n=1}^{\infty} a_n = 27, \sum_{n=1}^{\infty} \left(a_n + b_n - \frac{3n^2 - n}{9n^2 - 3n - 2} \right) = 28$$

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a_4 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2) $\lim_{n \rightarrow \infty} b_n$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3) $\lim_{n \rightarrow \infty} \left(a_n + b_n + \sum_{k=1}^n \left(a_k + b_k - \frac{1}{3} \right) \right) = 29 + A$ 일 때,
유리수 A 를 구하시오. (5.5점)

$a_1 = 1$ 이고 공비가 1 보다 큰 등비수열 $\{a_n\}$ 과 다항함수 $f(x)$ 에 대하여

$$\sum_{n=1}^{\infty} a_n f\left(\frac{1}{a_n}\right) = \frac{16}{3}, \sum_{n=1}^{\infty} \left(\frac{f(a_n)}{a_n^3} - 1 \right) = 4$$

이다.

(1) $\lim_{x \rightarrow 0} \frac{f(x)}{x}$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2)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x^3}$ 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3) $\sum_{n=1}^{\infty} \left(\frac{1}{a_n} \right)^2$ 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x \mid 0 \leq x < \pi\}$ 에서 정의된 함수 $f(x) = 2\sin^2\left(x + \frac{\pi}{3}\right) - 2\sin\left(x + \frac{5\pi}{6}\right) + A$ 의

최솟값은 -1 이고, $x = \frac{\pi}{B}$ 에서 최댓값 C 를 가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 는 상수, $B \neq 0$)

- (1) A 의 값을 구하시오. (5.8점)
- (2) B 의 값을 구하시오. (4.3점)
- (3) ABC 의 값을 구하시오. (1.9점)

두 상수 $a (a > 0)$, b 에 대하여 $0 \leq x \leq 2\pi$ 에서 정의된 함수

$$f(x) = \begin{cases} \sin x & (a \cos x + b < \sin x) \\ a \cos x + b & (a \cos x + b \geq \sin x) \end{cases}$$

의 최댓값이 $2\sqrt{3}$, 최솟값이 $-\frac{\sqrt{3}}{2}$ 이다.

- (1) $a+b$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 (2) $a \times b$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 (3) $k > \pi$ 인 상수 k 에 대하여 $f(k) = 0$ 일 때, $\sin k$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구간 $-\frac{\pi}{2} < x < \frac{\pi}{2}$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 가

$$\int_0^{3x} (2 - \cos t) dt + \int_0^{x+\pi} \sec^2\left(\frac{s}{4}\right) ds + \ln(f(x)-3) = 4$$

를 만족할 때, 다음

- 물음에 답하시오.
- (1) $f(0)$ 의 값을 구하시오. (3.2점)
 - (2) $f'(0)$ 의 값을 구하시오. (4.8점)
 - (3) 기울기가 $-\frac{1}{f'(0)}$ 이고, 점 $(0, f(0))$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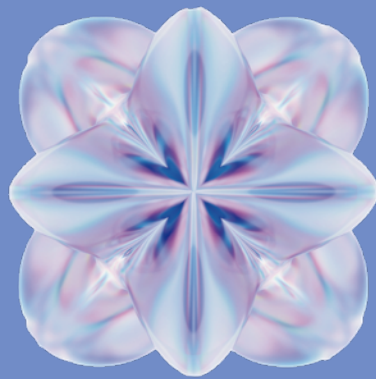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와 함수 $f(x)$ 의 한 부정적분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0^x \{f(t)\}^2 dt = F(x)e^x$$

을 만족시킨다.

- (1) $F(1) = e^{-1}$ 일 때, $\int_0^1 \{f(t)\}^2 dt$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 (2) $f(0) \neq 0$ 일 때, $f(0)$ 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 (3) $\frac{\{f(2)\}^2}{f(2)+F(2)}$ 의 값을 구하시오. (3.5점)
- (4) $f(\ln 2) = 4$ 일 때, $\int_0^{\ln 2} \{f(x)\}^3 e^{-x} dx$ 의 값을 구하시오. (5점)

씨에스엠17 약술논술



2026학년도
씨에스엠17 약술형논술
가천대 & 국민대적중 사례